증권 다이제스트

한국투자증권

17일 주식투자 세미나

한국투자증권은 17일 오후 4시부터 한국투자증권 신도림 지점에서 개인투자자 대상 '2019년 주식투자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투자증권 신도림지점 한국남 팀장이 '2019년 주식시황 및 박스권 매매전략' 이란 주제로 강의하고, 투자자의 궁금증 해소를 위해 질의 응답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주식투자에 관심 있는 투자자라면 누구나 무료로 참석 가능하며, 참가신청은 한국투자증권 신도림지점으로 하면 된다.

/김문호 기자

키움증권

LG생건 기초자산 ELS

키움증권은 16일 LG생활건강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가연계증권(ELS)을 출시했다. 청약은 오는 18일 오후 1시까지다.

'제916회 ELS'는 LG생활건강 보통주와 유로스톡스50(EUROSTOXX50)지수, 홍콩항셍중국기업(HSCEI)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며 3년 만기에 6개월마다 상환 기회가 주어지는 스텝다운 유형의 상품이다. 모든 기초자산이 최초기준가격의 90%(6·12개월), 85%(18개월), 80%(24개월), 75%(30개월), 70%(36개월) 이상이면 세전 연 12%의 수익률로 조기 또는 만기상환된다. 조기상환이 되지 않더라도, 투자기간 동안 모든 기초자산이 최초기준가격의 50%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다면 세전 36%(연 12%)의 수익률로 만기 상환된다. /손엄지 기자

신한금융투자

'킹스리그 시즌1' 개최

신한금융투자는 국내 및 해외 주식 실전투자대회인 '킹스리그 시즌1'을 개최한다. 오는 3월 29일까지 진행되는 '킹스리그 시즌1'은 동시에 참여 가능한 국내리그, 미국리그, 중국리그로 구성되는 실전투자대회이다. 매월 각 리그 수익률 1위에게는 순금돼지 3돈(11.25g)을 상품으로 증정하며 리그 별 수익률 100위까지는 커피 및 음료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한다. 또한 전체 리그에서 거래금액이 가장 많은 투자자에게는 순금돼지 2돈(7.5g)이 주어진다. 국내리그, 미국리그, 중국리그는 '리그별로 100만 원(US 900달러, 6,000 위안)수준의 자산을 보유한 고객이라면 신한금융투자 홈페이지 및 '신한아이 알파' 모바일 앱에서 '킹스리그 시즌1'의 참가신청이 가능하다.

/김문호 기자

"경상이익 1조 달성 키워드는 '고객 가치'"

새해 새 전략… 쏘왓 〈So What〉

정 영 채 NH투자증권 사장

작년 3분기 누적순익 전년 연간 초과
실적 '사상최대' 자기자본 5조 넘어

NH투자증권은 16일 창립 50주년을 맞아 50년 역사(社史)를 발간하고 전 임직원에게 배부했다. 정영채사장(오른쪽)이 본사 영업부를 방문해 직원들에게 직접 사사를 전달하고 있다. /NH투자증권

창립 50주년. NH투자증권이 새로운 변곡점에 서 있다.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은 새로운 출발점에 섰다.

지난해 NH투자증권의 실적은 사상 최대가 유력하다. 이미 지난해 3분기 누적 순이익은 전년도 연간 순이익을 초과했다. 자기자본은 5조원을 넘어섰다. 치열한 초대형 투자은행(IB)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실탄(자본)을 장전해 놓은 상태다.

◆ "5년 내 경상이익 1조 달성할 것"

NH투자증권의 지난 50년은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발전과 함께했다. 회사의 뿌리는 1969년 12개 보험사가 공동 출자해 설립한 한보증권이다. 당시 자본금 규모는 1억2000만원. 국내 최대 증권사였다. 이후 1975년 생보증권을 흡수 합병해 대보증권으로 거듭났다. 대보증권은 합병 첫해 자본금을 30억원으로 늘리며 대형화에 앞장섰고, 1979년 본사를 여의도로 이전해 대형 증권회사로서는 처음으로 여의도 시대를 열었다.

럭키금성그룹의 계열사 럭키증권은 1983년 대보증권을 흡수 합병했다. 1995년 그룹 브랜드 방침에 따라 LG증권으로 상호를 변경한 후 1999년 LG종합금융과의 합병을 통해 LG투자증권으로 거듭났다.

LG투자증권은 2003년 카드대란 위기로 우리금융그룹에 편입됐고, 2005년 4월 우리증권과의 합병으로 우리투자증권이 정식 출범했다.

2014년 말 우리투자증권과 NH농협증권이 합병되면서 지금의 NH투자증권이 출범했다. NH투자증권은 기존 우리투자증권의 균형잡힌 사업 포트폴리오에 NH농협금융의 강점인 유통망이 합쳐져 명실상부한 국내 대표 금융기관으로 거듭났다.

2017년 11월에는 자기자본 4조원의 요건을 갖춰 '초대형 투자은행'으로 지정됐다.

2018년 3월, NH투자증권을 IB 명가로 이끌던 정영채 사장이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이후 5월에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아 발행어음 사업을 시작했고, 7월에는 주택도시기금 전담운용사로 선정되어 4년 동안 약 19조원 가량의 자금을 위탁 운용하게 됐다.

정 사장은 취임 당시 "5년 내 경상이익 1조원을 달성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면서도 "어느 한 부문의 수익성이 40%를 넘지 않도록 고른 성장을 이뤄 내겠다"고 자신했다.

정 사장은 임직원들에게 세가지를 강조한다. 첫째는 효과적인 자본 배분과 경영관리체계의 고도화를 통해 운용자산의 수익성 제고다. 둘째는 고객과의 관계 형성 및 영업활동을 강화해 과정가치에 중점을 두는 것이다. 마지막은 디지털과 조직문화 혁신을 통한 본사 업무 효율화다. 부가가치가 낮은 업무는 간소화하고 이를 핵심업무에 집중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회사 자체로는 '자본시장의 대표 플랫폼 플레이어(Platform Player)의 완성'을 약속했다. 플랫폼 플레이어의 완성이란 자산관리가 필요한 개인고객과 더 좋은 투자대상을 찾는 기관고객, 다양한 재무적 고민을 가진 기업고객 모두가 NH투자증권이란 플랫폼에서 최적의 솔루션을 얻는 단계에 이르는 것을 의미한다.

◆ "고객가치가 최우선"

정 사장은 "과거 고객은 증권업을 위탁매매(주식 중개)업을 하는 단순 중계업자로 봤다면 지금은 파생결합증권, 해외주식 등을 사고, 증권사 종합자산관리계좌(CMA)나 환매조건부채권(RP) 등을 통해 단기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 플랫폼 사업자로 보고 있다"면서 "훌륭한 플랫폼에 고객이 몰려들고 자본이 집중돼 더 많은 네트워크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올해 각 사업부문이 최고의 시장경쟁력을 갖추고 상호 보완적인 역량을 결집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IB출신인 정 사장은 오랜 영업활동으로 고객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강조한다. 경상이익 1조 달성 목표를 위한 키워드 역시 '고객 가치'에 방점이 찍혔다. 정 사장의 지론은 '금융투자업의 본질은 돈이 아닌 고객을 관리하는 것'이다.

신년사에서 정 사장은 "고객은 증권업의 근간이자 우리의 존재이유"라며 "회사 위주의 입장에서 생각하던 관성을 탈피하고 고객의 니즈를 먼저 살피고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우리의 고객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판단하고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할 수 있는 고객에게 집중해야 한다"면서 "차별화된 솔루션을 제공해 고객과의 관계가 강화되면 우리는 아무도 넘볼 수 없는 회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엄지 기자 sonumji301@metroseoul.co.kr

글로벌 ESG펀드 날개 달았는데… 韓은 걸음마 수준

세계적 자산규모 1조500억 달러

"韓, SRI펀드 성장·투자유입 위해
기업의 ESG정보 제공 확대해야"

전 세계적으로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성과를 고려한 투자자가 늘면서 글로벌 ESG 펀드가 성장하고 있다. 반면 한국의 ESG 투자는 선진국에 비해 아직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다.

16일 자본시장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ESG 펀드의 운용 자산규모는 2012년 말 6550억달러에서 2018년 10월 말 1조500억달러로 약 60% 성장했다.

ESG는 환경·사회·지배구조(Environment·Social·Governance)의 약자로 기업의 탄소 배출량 등 환경적 요소나 지배구조에서 소수자 비중을 늘리는 등 비재무적 성과를 고려하는 투자를 뜻한다.

◆ ESG 투자↑…유럽이 시장 견인

국제적으로 자산운용 산업에서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ESG 성장세는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질 전망이다. 모건스탠리도 118개의 공적연금, 사적연금, 보험회사 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의 84%가 투자 시 ESG 관련성을 고려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응답자의 60%는 향후 4년 내에 ESG 투자를 시작할 것이라고 답했다.

유럽은 글로벌 ESG 시장의 가장 큰 손이다. 2018년 10월 말 기준으로 유럽의 ESG 펀드 운용자산은 6300억유로다. 이는 2012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미국은 3000억달러 수준의 ESG 펀드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로리 키스 파르나소스 인베스트먼트 애널리스트는 포춘US의 2019년 투자자 가이드에서 "기업의 긍정적 사회공헌 요인을 강조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실적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이 굳어져 있다"고 설명했다.

◆ 韓, 아직 초기 단계

세계적 추세와 달리 한국의 ESG 투자는 선진국에 비해 규모나 수익률 면에서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한국의 ESG 투자는 주로 연기금의 사회책임투자(SRI·Social Responsible Investment) 펀드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2017년 전체 SRI 펀드 순 자산은 약 8조원으로 전체 공모펀드 순자산인 218조원의 약 3%에 불과하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SRI 펀드 순 자산도 약 7조 2000억원에서 8조원 규모로 크게 변하지 않았다.

수익률도 좋지 않다. 국내 SRI 펀드의 설정액 상위 10개 펀드 중 연초 이후 수익률이 벤치마크 수익률을 웃돈 곳은 2곳 뿐이다.

국내 SRI 펀드 시장이 성장하고 ESG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선 투자자 유입이 급선무다. 특히 이를 위해 ESG 자료제공이 늘어나야 한다는 지적이다.

공경신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원은 "기업의 ESG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SRI 펀드에 대한 객관적 분류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국내에서도 ESG 투자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최근 세계적으로 관심과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ESG 투자 확대를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경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한님 수습기자 ericabae1683@

금융위원회가 16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창업허브에서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최종구 위원장(왼쪽 세번째)과 유광열 금감원 수석부원장(네번째)이 관계자들과 포즈를 취했다. /금융위원회

"글로벌 핀테크 기업 나올 수 있게 지원"

최종구, 핀테크 간담회 개최

"올해가 핀테크 내실화의 골든타임이다. 글로벌 핀테크 기업이 나올수 있도록 집중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16일 서울 마포구 서울창업허브에서 500명 내외의 핀테크 업계 종사자와 함께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을 위한 핀테크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이후 진행될 금융규제 샌드박스와 정부의 올해 핀테크 지원정책 추진방향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핀테크 사업에 한해 각종 규제를 면제해 주는 제도다. 금융위는 오는 21일 사전신청을 받아 4월 법 시행에 맞춰 우선 심사대상 혁신서비스 중 5건 내외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최종 선정할 방침이다. /나유리 기자 yul115@